**<Quiz>** **과목 : 핀테크개론**

**성명 :**

1)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것은? ...............................................()

1. 클라우드 슈밥회장이 다보스경제포럼(2016년) 때 언급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2.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는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3. 4차 산업혁명은 모바일혁명이란 점에서 유통시장혁명이기도 하다.

4. 4차 산업혁명에선 디지털, 모바일플랫폼이 시장역할을 한다.

2) 4차 산업혁명의 기회와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1. 시간공간 제약없는 손안의 플랫폼 때문에 시장이 확대되었다.

2. 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유니콘의 등장은 글로벌 플랫폼업체로 인해 촉진되었다.

3. 단기간의 시장 확장성은 수익모델의 회임기간을 단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위험이 커지므로 기업은 국내에서 성장한 후, 해외진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금융의 혁신단계에서 혁신기술이 본격적으로 쓰이는 것은 ()를 통한 융합 때문이라 할 수 있다.

4)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금융이 ‘실물의 그림자’라는 전통 경제학을 벗어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금융의 성격 변화(유형 -> 무형상품화)를 꼽을 수 있다.

2.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금융수익모델은 혁신, 선도, 수출모델이 될 수 있다.

3. 디지털금융은 아날로그금융 대비 플랫폼 형성이 용이하다.

4. 금융이 혁신리더가 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는 상품주기(생산-판매-소비)가 짧아서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5) 초연결, 초고속사회와 함께 공유경제, O2O가 확산하면서 유휴자산이 사라지고 있다. 이는 이전 대비 제품의 생산량을 감소시키면서 기업자금 수요가 줄어들어 ()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수료 수익모델은 약화하고 있고, 그 결과 ()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6) 다음 설명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1. 인터넷은행은 사실상 모바일은행 성격으로 과거 미국, 일본에서 유행했던 PC은행과는 성격이 다르다.

2. 카카오뱅크가 상장되어 기존 대형은행의 시가총액을 훨씬 뛰어넘은 데에는 일부 버블도 있지만, 금융플랫폼의 융합효과와 MZ세대들 고객층의 미래수익기대가 포함돼 있다.

3. 간편결제업체의 기업가치는 자체수익뿐 아니라 여타 기업 및 비즈니스모델과의 융합가치가 포함돼 있다.

4. 간편결제시장은 과당경쟁상태로 수익성이 약화되고 있어 투자매력이 감소하고 있다.

7) P2P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

1. 새로운 금융시장 및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2. 포용금융수단이 될 수 있다.

3. 자금수요자와 공급자를 플랫폼을 통해 연결하는 간접금융의 일종이다.

4. 대안평가 및 새로운 금융분야 창출이란 점에서 대안금융이다.

8) 다음 P2P 설명 중 가장 맞지않는 것은? .......................................................()

1. 컴퓨터라이징을 이용하여 수요공급자의 니즈를 잘 맞출 수 있다.

2. 비용이 적게 들어 가성비가 뛰어나다.

3. 기존 은행이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대출이 가능하고 새로운 빅데이터를 창출할 수 있다.

4.우리나라의 P2P는 개인신용대출이 3분의 1, 기업신용대출이 3분의 1, 부동산대출이 3분의

1을 차지한다.

9) 인슈어테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보험은 업종 성격상 빅데이터의 활용이 특히 중요하다.

2. 글로벌 시장에서도 핀테크분야 중 각광을 많이 받고 있으며, 일찍 시작된 분야다.

3. 중국의 중안보험은 아날로그를 대체하는 디지털의 높은 효율성 외에 산업간 융합을 통한 고용효과로 주목을 많이 받았다.

4. 부처간 협력이 중요하나, 활성화가 쉽지 않은 분야 중 하나다.

10) 다음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1.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조달 외에 매출확대와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크라우드펀딩 활용으로 벤처초기의 J-커브효과를 완화할 수 있다.

3. 크라우드펀딩은 불특정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한 자금조달로 집단지성의 힘을 믿는다.

4. 크라우드펀딩의 원조는 영국의 죠파다.

11) 다음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1. 우리나라는 현재 금융혁신 3단계에서 4단계로 이동중이다.

2. 우리나라 데이터경제는 금융혁신단계로 보면 3단계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3. 여타 산업과의 시너지가 본격화되는 것은 금융혁신 3단계부터다.

4. 플랫폼의 핵심요소는 빅데이터와 융합니다.

12) 오픈뱅킹 관련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1. 오픈뱅킹은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업체들도 참여한다.

2. 오픈뱅킹의 목적은 경쟁강화를 통한 소비자고객의 효용제고에 있다.

3. 오픈뱅킹은 고객의 자기정보 이동권을 강화하여 마이데이터산업을 가능하게 한다.

4. 우리나라 오픈뱅킹은 은행간 API 활성화를 통해 촉진되고 있다.

13) 디지털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디지털 전환은 고객 접점 채널의 디지털화가 핵심 목표다.

2. 중국에선 기존 은행의 디지털 전환사례로 알리바바의 마이뱅크, 텐센트의 위뱅크를 꼽는다.

3.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지만, 비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4. 디지털 전환은 금융상품의 기획, 개발, 판매, 관리 등 전과정의 디지털화다.

14) 비대면상으로 개인니즈에 맞춰 공급되는 금융서비스는 관리감독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나오고 있는 핀테크상품으로 사후감독에 해당하는 (**SupTech**)과 사전적인 준법체크에 해당하는

(**RegTech**)를 꼽는다.

15)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일종의 규제프리존이다.

2. 규제법 체계가 다기화되어 있고 복잡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3. 테스트베드를 통한 소비자수요를 파악, 구체적인 비용(규제완화)과 편익(소비자이익)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방법이다.

4.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고안되었다.